

다산포럼

따로 또 같이, 관계 미학의 힘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영화평론가

“무지하게 겁내요.” “단군 이래 최대 폭염이라네요.” 요즘 주고받는 인사는 나날이 기록 경신에 들어간 폭염 탄식으로 넘쳐난다. 그러던 와중에 만난 올림픽 이미지 몇 장은 인류가 온난화시켜 버린 지구촌에서도 살아 널 희망과 용기를 보여준다.

리우 올림픽 광장, 8월 17일 육상 5000m 경기 예선에서 두 여성이 보여 준 관계의 미학은 자매애의 뭉클함을 전해 준다. 니키 햄블린(뉴질랜드)이 결승선 약 2000m를 앞두고 발이 꼬여 넘어진다. 바로 뒤에서 달려던 애비 디아고스티노(미국)가 쓰러진 햄블린에 걸려 넘어진다. 먼저 일어난 디아고스티노가 햄블린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통신이 전해 준다. “일어나, 우리 둘 다 완주해야지”라고. 디아고스티노는 햄블린을 부축해 일으켜 세워 같이 달린다. 잠시 후 디아고스티노가 주저앉는다. 이번엔 햄블린이 달리기를 멈추고 디아고스티노에게 다가간다. 그녀를 잡아주며 함께 달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같이 완주하자고 권한다.

햄블린은 16분 43초 61로 29위, 디아고스티노는 17분 10초 02로 30위로 완주한다. 이 우발적인 아름다운 자매애를 목격한 관중은 꿀찌에게 기립 갈채를 보낸다. 먼저 도착한 햄블린은 디아고스티노를 기다렸다 포옹한다. 둘이 함께 해낸 것이다. 이 순간, 두 여성의 표정은 어떤 영화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엄청난 연대의 감동을 보여 준다.

이 글을 쓰며 이들 표정을 바라보는 내내 눈물이 나온다. “감동의 눈물은 바로 이거야!”, 라는 느낌이 온몸에 전해온다.

이어 놀라운 반전이 발생한다. 이 모든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심판은 넘어진 것이 고의가 아니기에 두 선수 모두에게 결선 진출이라는 올림픽 정신으로 화답

한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반전의 미학이 증명된 셈이다. 햄블린은 이 멋진 우연을 이렇게 밝힌다.

“내가 넘어졌을 때 디아고스티노가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정말 고마웠고 그녀에게서 올림픽 정신을 봤다. 나는 결코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이 따로 달리다 번갈아 주저앉고 서로 격려하며 같이 완주하는 모습은 세계 언론을 타며 찬사를 불러일으킨다.

올림픽위원회에서도 트위터에 바로 이 이미지를 올리며 “올림픽에선 항상 승리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인다. 올림픽은 경쟁해서 홀로 메달 따는 것이 아니라 메달 수 집계로 국가 순위 매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것보다 지구촌 화합과 평화로운 교류라는 것이 증명된 또 다른 감동의 이미지도 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사진 한 장에는, 한국의 기계제조 이은주와 북한 기계제조 홍은정이 등장한다. 이들이 경기장에서 만나 반가워하며 상큼한 미소를 보인다. 서로 몸을 가까이하며, 한 손을 길게 뻗어 셀카 찍는 모습은 이심전심의 경지를 보여준다.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체조선수가 함께 만난 것을 기념해 사진을

찍는 평화로운 환경, 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이란 것을 구체적 상황을 통해 보여준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이미지도 기쁨을 준다. 팀 닥터도 없고 공식 통역사도 없는, 남자 배구팀만큼 지원을 못 받는 힘든 상황에서도 8강에 진출하며 코트를 새처럼 나는 모습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8, 임순례) 영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 준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참가했던 여자 핸드볼 선수들이 서로 격려하며 코트를 누비는 모습은 비인기 종목으로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면서도 같이 뛰는 연대의 힘을 보여 주었다.

폭염에 시달리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날아간 스포츠 선수들이 보여준 이런 이미지는 지구 평화 운동을 하며 지구 식히기를 같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 준다. “인생길 가기는 홀로 있음과 같이 하기가 사이를 오가는 서늘과 같은 것”이라는 알베르 까뮈의 통찰력이 새삼 떠오른다. 따로 또 같이 오가며 지구촌 연대를 생성하는 관계의 미학을 목격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폭염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

정촌 특·특

광주 사람에게 대한 모든 기록, 광주학



황소미
광주문화재단 대학생기자단·조선대 정외과

가 ‘정치학’으로 바뀌면 쉽게 거리감을 느끼고, 정말이지 ‘내년 너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

“광주학 포럼’이 열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은 ‘어렵고 재미없겠다’는 것과 더불어 ‘대체 광주학이 뭘까?’라는 것이었다. 포럼이 열린 빛고를 시민문화관은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가득 찼지만, 처음부터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포럼을 들어보니 광주학은 생각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포럼을 통해 얻은 광주학에 대한 나름의 정의는 ‘광주와 광주 사람들에 대한 모든 기록’이다.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연구를 비롯한 시민들의 기록 또한 광주학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는 예로부터 동굴 벽면을 긁어 그림을 남기고 점토판, 나무줄기, 종이에 글자를 남겼고 지금은 남겨진 기록과 남긴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저장하고 ‘기록을 보존한다’는 단어 ‘아카이빙(Archiving)’을 새로운 명사처럼 활용하여 인류의 거의 모든 것을 아카이빙 해나가고 있다.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기록을 통해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정보가 재생산되어 발전을 이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우리 스스로 기록을 통해 기억될 수 있기 때문이다.

30년 전 내가 겪었던 광주, 동네 어귀의 나무가 언제 심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무등산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고, 총장로는 언제부터 도시 중심 변화의 역할을 해왔는지와 같은 모든 기록이 곧 광주학이 되고, 우리 스스로 광주학을 다루는 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학로서의 광주학, 즉 광주에 대한 기록 및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5·18민주화운동처럼 굵직하고 상징적인 것들에 대한 기록은 잘 정리되어 있고, 여전히 기록 작업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외에 것들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광주 근대 기업사·상업사·철도교통사 등 분류사, 근현대 인물 등에 대한 기초연구 학술서나 해방공간 신문, 근현대 광주기행문 등 자료총서도 제대로 정

리된 것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10년 전에 지역학 연구센터를 세워 자신들의 기록을 저장해온 울산광역시와 비교해도 그렇고, 지역에 대한 연구 및 자료집을 꾸준히 발간하는 타 지역들에 비해서도 그렇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포럼과 같이 이제라도 ‘광주학’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하는 광주 내부의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광주를 노래한 대중음악, 광주지역 다방의 역사 등 자발적으로 광주의 다양한 모습들을 기록해온 시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알게 되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이번 포럼과 같은 시간들은 광주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는 불씨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광주학 포럼을 비롯한 논의의 장(場)들이 점차 늘어나 ‘광주학’이 ‘엔지 어려울 것 같다’는 편견에서 벗어나고, 보다 많은 광주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광주에 대해 기록을 남겨갈 수 있는 것들을 내딛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기 고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거는 기대



박안수
경제학박사·전 농협 장흥군지부장

던 대규모 통합의학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통합의학 박람회에 투자된 사업비만 하더라도, 장흥군비 60억원을 포함하여 국비·도비·자체수입 등 총200여억원 이상이 투자될 전망이다.

박람회 규모 역시, 전세계 45개 국가에서 외국인 5만여명을 포함해 관람객이 총 100만명 이상 관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입장권 사전예약을 실시해 50만매 이상을 판매했다고 한다.

또한 전남지역의 타 시·군은 물론, 전국 지자체와 국내외 150개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준비에 한 치의 빈틈도 없는 듯하다.

박람회의 주요 콘텐츠 구성을 보면 주제·체험·교류·건강 등 4개 존으로 구성돼 있다. 주제 존에서는 통합의학의 핵심 철학과 발전현황을 관찰할 수 있으며, 체험 존에서는 연령별, 질환별로 통합의학적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치유체험을 하게 된다. 교류존에서는 국내외 의료기관·단체 및 학회 등이 참여해 자국의 검증된 전통의학을 소개하고, 기업 등은 건

식식품 홍보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된다.

건강 존에서는 22개 시·군 보건소와 협회단체가 보유한 건강콘텐츠 홍보 및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등 찾아오는 관람객이 다양한 의료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리 남도에서는 농업, 대나무, 해조류 등의 국제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경험이 있어, 장흥 국제 의학박람회도 한차원 높은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최근 모 가수의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까지도 나오는 100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체는 과연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유행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은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정남진 장흥군은 전체의 산과 들, 바다가 잘 어우러져 있고, 지난날 생약초 한방특구로 지정됐으며, ‘우드 랜드’와 전국 제일의 장흥 토요시장과 함께 장흥댐의 맑은 물을 보유하고 있다. 특산품인 장흥

한우, 표고버섯 그리고 키조개는, ‘건강 1번지’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번 장흥 국제 의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장흥군은 통합의학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뿐 아니라, 통합의학에 관련된 자원들의 집약적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흥군이 통합의료산업의 허브로 육성돼 40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천문학적인 생산유발 효과와 동시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최근 ‘장흥 물축제’ 기간 동안 장흥을 찾는 관람객이 35만명 이상으로 문체부가 선정한 3년 연속 대표 우수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매년 군(郡) 단위에서 가장 많은 수(數)의 관광객이 장흥군을 찾는다고 한다.

아울러 기존에 몇 차례 개최되었던 통합의학 박람회의 경험과 노하우로, 2016년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빈틈없는 준비로 미증유의 국제 통합의학 박람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

社說

막바지 폭염 농수산물 피해 최소화 만전을

폭염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속되는 고온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가 하면 농수축산업의 손실도 이만저만 아니다.

살인적인 더위로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많은 면적의 발작물과 과수가 타들어가고, 연일 닭과 돼지가 폐죽음을 당해 이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 간다. 바다에서는 양식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 수산업 피해도 날마다 불어나고 있다.

더욱이 바닷물의 온도가 30도 이상을 웃도는 이상 고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산업계는 초비상이다. 이미 우리나라 전복 양식 중심지인 완도에서는 2500만 마리 이상이 죽어 나간 것으로 집계됐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우럭·참돔·납치·키조개·새조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전남 남해안 지역에 적조주의보까지 발령돼 어민들은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

앞선 대 닢친 격으로 올 여름 마른장마로 가뭄 조짐마저 보여 성장기 벼농사 걱정도 크다. 최근 두 달 동안 전남 지역 강수량은 333mm로 평년(444mm)의 75% 수준이고, 저수율도 52%로 평년 67%보다 낮은 상태다. 이대로 가면 식수 등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발작물 피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또 섬이나 산간 지역 주민을 위한 비상 급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또 적조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방제 예비비를 편성했다. 해상상의 적조 방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예찰을 강화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사람 힘으로 자연 재해를 온전히 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리 대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계속될리하면 손실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벌써 몇 년째인가 ‘교통사고 1위’ 광주의 오명

광주가 ‘교통사고 전국 1위 도시’라는 오명을 좀체 벗지 못하고 있다. 술한 캠페인이 있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검찰이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등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광주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18.8건으로 서울(117.3)·대구(113.7)·대전(101.9)보다 높고, 인천(60.5)과 비교하면 무려 2배 가까이나 높았다.

결국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검찰이 교통사범에 대해 한층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음주운전과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니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검찰의 단속 강화는 통계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올 들어 7월까지 주요 교통사범 34명을 구속 기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명에 비해 141%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약식기소에 그쳤던 교통사범에 대한 정식재판 화부율도 크게 높였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전체 1480명 중 100명을 기소했으며 범법으로부터 총 70명에 대해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이끌어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명)에 비해 무려 305% 증가한 수치다.

광주지검은 주요 교통사범에 대한 양형기준과 항소기준을 일반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음주운전 및 배려 교통실천 10대 원칙 위반 사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행자 사고, 대형차의 소형차에 대한 사고, 보복 및 난폭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양형을 가중하는 등 더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광주가 교통사고 1위 도시의 오명을 벗으려면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준법 의식이 절실하다.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위법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시민의식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無 等 鼓

하고많은 이름 중에 왜 ‘별뿔별’이라 지었을까? 여기엔 별조차 의인화에 생 각한 조상들의 우주관이 엿보인다. 우주의 개념이 현재와 다른 옛날 옛적에 나뉠없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流星)은 당시 사람들에게 경외감과 함께 불길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서인지 고대소설에서는 위인이 돌아가 기 직전, 꼭 큼직한 별뿔이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곤 했다.

“유성이 진현성(鎭賢星)에서 나와 남문성(南門星) 근처

주자장과 잔디밭 등지에 돛자리를 깔고 누워 모처럼 별하늘 여행을 했다. 이날 시간당 최대 150개 정도의 유성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흔히 별뿔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들 말한다. 이날 많은 가족·연인들이 유성을 바라보며 사랑과 행복을 빌었으리라. 한 후배는 별뿔별이 떨어지는 ‘찰나’에 맞춰 소원을 빌기 위해 계속 “돈! 돈! 돈!”을 읊조리고 있었다.

어지는 순간 “와~!”로 바뀌어 버렸다고 했다. 그날 예보만큼은 많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큼직한 유성이 빛을 내며 밤하늘을 가로질러 갔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노래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싸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부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외짝 떠라.”(윤동주 동시 ‘눈감고 간다’)

요즘 온갖 과로와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도시인들이여, 가로등 밝은 밤하늘이나마 잠시 고개 젓혀 견우와 직녀성을 찾아보자!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별뿔별 소원빌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행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